

돈 물리는 미술계 '아트테크' 성공하려면... (아트+재테크)

묻지마 투자 금물... 안목 키워라

1년에 한달 월급 정도가 무난 경매 현장 직접 발품 팔아야

최근 미술품 경매회사의 하루 경매 낙찰총액이 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미술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술의 '아트(art)'와 재테크의 '테크(tech)'를 결합한 용어인 '아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



최근 미술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일반인들의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남도예술은행 토요경매 모습.

각, 작품 판매 동향 등 미술품 거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작가, 미술관이 가장 좋은 조연자=작가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미술가들 중에 훌륭한 화가들이 많다.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명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는 작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들의 드로잉의 한점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는 환금성과 수익성 면에서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이다. ▲경매를 통한 미술품 구입·판매방법=남도예술은행 토요경매를 통해 작품구입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nartbank.com)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작품을 구입하거나, 경매가 열리는 윤림산방에서 현장 응찰하면 된다.

▲이제는 만류 보인다=컬렉션에 눈뜨기 위해서는 아트페어나 전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국제 아트페어나, 마니프 아트페어 등은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시를 볼 때 관심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 한국 현대미술사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림과 함께 맛보는 영화음악 '팝콘'서트

10일 광주필하머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광주필하머니 오케스트라(지휘 김경양·사진) 제 35회 정기연주회가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주곡 작품번호 54', 랄로의 '바이올린협주곡 스페인 교향곡 작품번호 21' 등을 협연한다. 이날 회관 로비에서는 광주은행 그림대회 수상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9일 금남공원 '광장음악회'

매월 두번째 주 토요일 저녁 옛 한국은행 자리에 위치한 금남공원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광장음악회'라는 이름을 달고 문화지킴이 '광장'이 진행하는 소박한 연주회다. 6월 공연이 9일 오후 6시 광주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광주도심 예술로 색칠하라

의재창작스튜디오, 극장·시장·무등산 등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점들' 주제로 이달 말까지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광주 도심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광주극장, 대인시장, 무등산, 시내버스 승강장 등 광주 도심 7개 장소에서 전개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의재창작스튜디오 참여 작가들이 진행하는 'Project 광주극장-Project Ac/r T'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영상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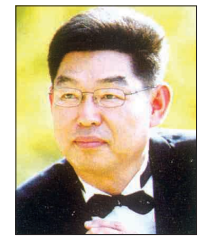
의재 창작스튜디오는 '지점들(spots)'이라는 주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예술인 거주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재독 화가인 안향희씨가 진행하는 'Project 광주극장-Project Ac/r T'는 컴퓨터·비디오 룸을 배치한 공간 'Ac/r T'를 운영, 다매체 시대의 문화를 조명한다.

주제로 대인시장 인근 창고를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문화생산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한다. 대안공간인 '창고' 꾸미기를 통해 갤러리를 벗어난 장소에서 시민과 예술의 만남을 유도한다. 박진호의 '도시극장 프로젝트 밤나들이'는 뛰어노는 어린이들과 무리지어 움직이는 나비의 이미지를 담은 영상물 도식 건물의 벽면에 투영하는 작업이다.

광주교원 윈드오케스트라

12일 5·18문화센터서 연주회

광주교원 윈드오케스트라(단장 박대훈·사진) 3회 정기연주회가 12일 오후 7시 광주 5·18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장준수(동성여교 교사)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로드리게스의 '라 콤파르시타', 맥코이의 '아프리카 교향곡' 영화음악 '모정' 등을 들려준다.



"한국여성 하루 평균 40분간 화장"

기초화장품 12.6개 사용... 화장품 직접 시는 남성 25% 불과

한국 여성들이 화장대에 앉아 화장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브랜드 랭킹 연구소가 한국의 여성 700명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이 화장대에 앉아 화장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0분이었다고 7일 밝혔다. 또 한국여성들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은 오전 오후 합쳐 평균 12.6개로 중국 여성(4.3개)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오전의 경우 비누나 클렌징폼, 토너, 로션, 세럼, 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이었으며, 오후에는 비누나 클렌징 폼, 클렌징 크림, 토너, 로션, 세럼, 크림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